

# 하반기 채용시장, 대기업은 '단비' - 中企는 '먹구름'

**인크루트 상장기업 571곳 설문**  
대기업 신입 대부분 공개채용  
중소기업 10곳 중 1곳만 공채  
中企 절반은 수시모집서 중단

진행한 결과 기업 규모별 채용방식의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밝혔다. 응답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 190곳, 중견기업 178곳, 중소기업 203곳이었다.

신입정규직을 공채로 뽑는 비율은 대기업(67.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중견기업(29.5%), 중소기업(10.6%) 순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공채 선발 비율이 낮았다. 대기업 신입 공채 계획은 중소기업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반대로 수시모집 계획은 중소기업(46.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38.4%), 대기업(11.8%) 순이었다.

대기업은 공개채용으로 중소기업은 수시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10곳 중 1곳만 공채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상장기업 571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 1 전화 설문조사를

신입 채용 방식에서 대기업 과반수는 공개채용을 택했지만, 공채진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수시채용을 통해 신규 인재를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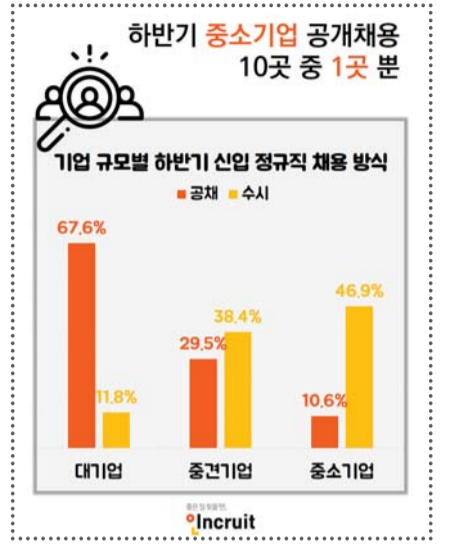
이런 흐름은 인턴과 계약직 채용에서도 드러났다.

채용전제형 인턴사원 공채 계획이 있다는 대기업은 45.6%에 달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 5.4%, 5.3%에 그쳤다. 인턴사원 수시채용 비율은 중견기업(14.3%), 대기업(13.2%), 중소기업(10.6%) 순으로 중견기업이 대거를 소폭 앞섰다.

신입계약직 채용은 대기업의 24.1%가 공채를 선택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 0.9%, 2.7%로 비율이 낮았고, 반대로 신입계약직 수시채용 계획은 중소기업(12.4%)이 대기업(10.1%)과 중견기업(8.0%)을 넘어섰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하반기 채용 기상은 단비와 먹구름이 동시에 낀 상태"라며 "대기업발 대규모 채용은 반감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채용규모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침체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소염진통제 신약 후보물질 독점 계약

**광동제약 비스테로이드 'AT-B346'**

광동제약은 캐나다 제약사 안티브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1) 신약 후보물질 'AT-B-346'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TB-346은 류마티스관절염 및 골관절염에 따른 통증을 개선하는 약물로, 기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인 위장관 장애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안티브 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에서 마친 임상 2상 결과 ATB-346은 기존 약물과 비교해 위장관 장애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티브 테라퓨틱스는 향후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승인신청(NDA)을 할 계획



광동제약 본사. /광동제약

이다. 광동제약은 앞으로 ATB-346의 국내 개발 및 판매 독점권한을 갖게 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땃 올린 '도전! K-스타트업 2018'... 5억 주인공은?

**국내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 시작**  
총 5770팀 참가... 135팀 본선 진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8'을 본격 알리는 출정식이 10일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통해 총 5770팀이 참여했고, 각 리그별 치열한 예선을 거쳐 135팀의 최종 본선진출자가 가려졌다.

예선에는 혁신창업리그(중기부) 2414팀, 학생리그(교육·과기부) 786팀, 국방

리그(국방부) 800팀, 글로벌리그(중기부) 1779팀이 각각 참가했다.

올해 행사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세계 128개국의 창업자가 참여하는 글로벌리그가 추가됐다. 상금도 1위 5억원을 비롯해 총 18억원에 달한다.

또 이번 경진대회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지원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진대회 벤처펀드와 91억원의 기술보증기금 융·투자를 통해 우수 창업자를 선발, 지원키로 했다.

홍준학 중기부 장관은 출정식 모두발

언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방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타트업 파크'를 만들겠다"면서 "해외에는 우리와 해외의 스타트업이 개방된 공간에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코리아스타트업 센터'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18'은 약 4개월에 걸친 예선을 마무리하고 9월 중순부터 본선 및 왕중왕전이 차례로 열린다. 10월부터 녹화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TV로 시청할 수도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300억 조기 집행

**서울우유 기존 보다 15일 앞당겨**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600개 협력업체에 300억원 규모 납품대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협력사 대금 지급은 매월 28일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기존 대비 15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협력사가 직



서울우유협동조합 본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원자재 대금 등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물품대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상용화 10년 만에 '국내 신기록'

GC녹십자가 독감백신 상용화 10년만에 대기록을 세웠다.

GC녹십자는 자사 독감백신의 내수용 누적 생산 물량이 1억도스(성인 1억명 접종분량)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백신 제조사가 내수용으로만 독감백신 생산 1억도스 고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 백신 생산시설인 화순공장에서 지금까지 국내 판매용으로 생산한 독감백신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경부고속도로를 10년 왕복하고도 남는다.

GC녹십자는 지난 2009년 국내 제조사로서는 처음으로 독감백신 양산에 들어간



지씨플루 퀘드리밸런트

이후 국내에 가장 많은 물량의 독감백신을 공급하며 줄곧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 시즌 공급량도 약 900만도스 분량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회사 측은 수출분을 포함한 독감백신 총누계 생산 물량이 내년에는 2억도스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GC녹십자는 국내 출시 이듬해인 2010년부터 우리나라

와 계절주기가 정반대인 남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독감백신을 수출하면서 한철 장사로 그칠 수 있는 사업을 연중 공급하는 체계로 지체 없이 확장했다. 특히, 유엔 조달시장에서는 전 세계 백신 제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독감백신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입지를 드러내고 있다.

통상 독감백신을 만드는 데는 바이러스 배양을 위해 쓰이는 유정란을 확보하는 기간을 포함한 5~6개월이 소요되지만, GC녹십자 화순공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단축된 2~3개월 만에 독감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수출 덕분에 유정란이 연중 항상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박인용 기자

## LG하우시스 북미 인조대리석시장 공략 본격화

5000만 달러 투자... 생산라인 증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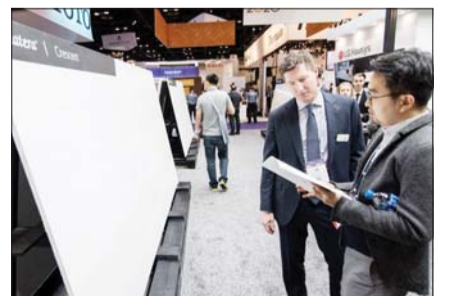
LG하우시스가 프리미엄 인조대리석인 '엔지니어드 스톤(Engineered Stone)'을 통해 북미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LG하우시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공장에 총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엔지니어드 스톤 3호 생산라인을 증설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엔지니어드 스톤이란 천연 석영계 재료를 약 90% 함유한 프리미엄 인조대리석 제품으로 외관은 천연 대리석과 같지만 가공성, 내구성 등이 천연석 보다 뛰어나 주방가구, 세면대, 식탁, 호텔·병원 등 상업용 시설의 각종 안내데스크 및 카운터, 벽체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이같은 엔지니어드 스톤의 수요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6년 하반기 2호라인을 증설한 데 이어 바로 3호라인 증설까지 이어지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다.

신규로 증설되는 3호 생산라인은 연산 35만㎡ 생산규모로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증설이 끝나면 LG하우시스의 엔지니어드 스톤 총 생산규모는 현재 생산



올 상반기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인 'KBIS 2018'에서 LG하우시스 직원이 미국 현지 고객에게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하우시스

량(70만㎡)보다 50% 증가한 105만㎡로 늘어난다. 특히, 3호 라인인 정교해진 로봇 설비를 도입해 다양한 디자인의 엔지니어드 스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BGF리테일,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 시작

BGF리테일이 오는 17일부터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채용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2019년 2월 졸업)를 대상으로 한다. 예상 채용 규모는 00명이다.

모집 직군은 ▲영업관리직군 ▲경영지원직군 ▲재경지원직군 ▲전략기획직군 ▲상품운영직군 ▲전문직군으로 나뉘며,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1차 면접, 최종면접, 인턴실습, 최종입사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17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BGF리테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용에서 BGF리테일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업(業)에 대한 관심 검증에 중점을 둔다. 온라인 전형의 모든 단계에는 AI검증 프로그램이 도입돼 휴먼 에러와 채용 담당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소서 내용에 대한 표절 심사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